

지방세 전자민원신청기(키오스크) 도입방안

- ◇ 지방세 신고·납부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인·허가 부서에 도입하여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, 올바른 납세의식 고취 및 민원 편의 증진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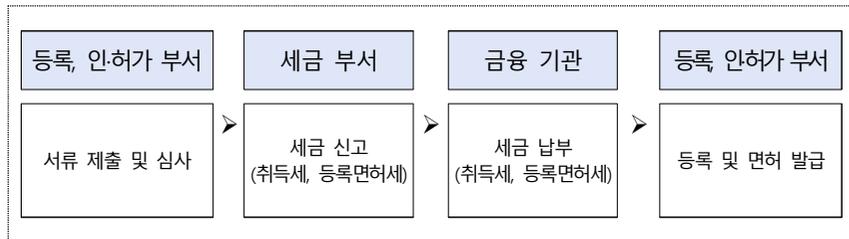
I 추진 배경

- 새정부 지방인력 관리방향*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인력운영
 - * 매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(정원의 1% 이상) 발굴, 신규 수요 재배치
-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및 주민-행정기관 간의 행정업무 시·공간적 제약 극복

II 현 황

- 자동차 등록 및 각종 인·허가에 대한 절차가 복잡함.

【 차량 등록 및 인·허가 절차 】



- 납세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는 잘못된 업무 관행
 - 촉박한 민원처리 시간과 관행으로 공무원이 세금 신고서를 대리 작성

III 문제점

- 차량 등록 및 인·허가에 대한 시·공간적 절차 복잡
 - 차량 등록 및 면허 취득시 여러 부서 및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함*.
 - *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중 55%에 해당함.

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	
구 분	비 율
복잡성과 너무 많은 서류를 작성하는 번거로움.	31%
불편하고 시간 소모가 많다.	24%
정부가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.	12%
정부가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/환급이 없다.	9%
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	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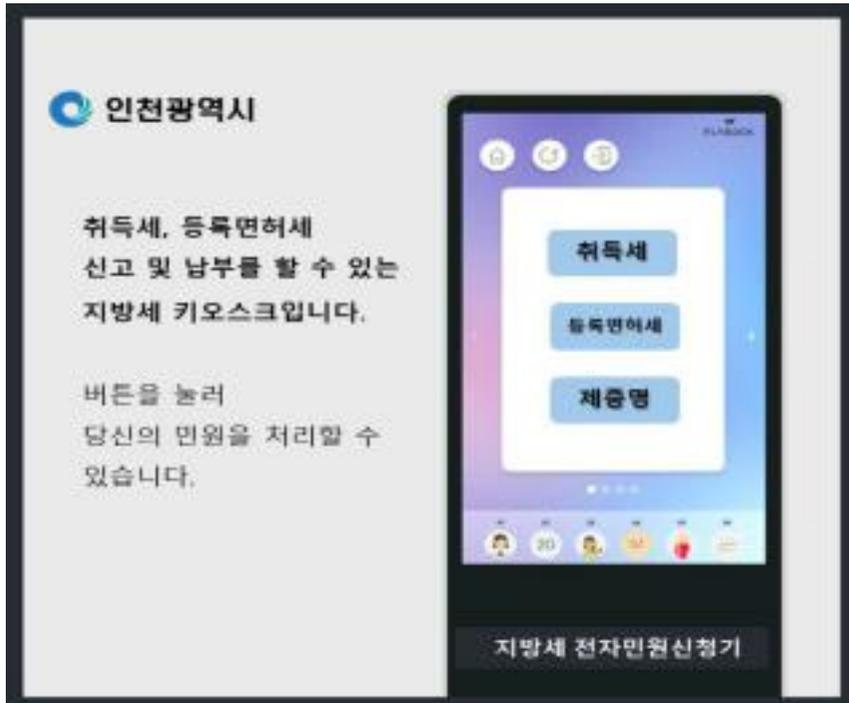
* 출처 : Pew Research Center

- 지방세(취득세, 등록면허세) 착오신고 및 납부에 대한 분란 야기
 - 납세자가 신고서의 항목들을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나,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신고하고 공무원이 대부분 작성하고 있어 착오신고 시 책임소재 등 분란이 야기됨.
- 행정기관에서 실질적 대리신고로 납세자의 올바른 인식 부재 야기
 -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에 참여하지 않아 세금은 국가가 뺏어가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처럼 인식됨.
- 불필요한 종이문서 양산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초래
 - 디지털 대전환과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억장*에 달하는 문서가 단순 보관을 위해 생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고서 인쇄비, 증빙자료 복사비, 보관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.

* 출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

IV 추진 방안

- 지방세 전자민원신청기(키오스크) 도입
 - (내 용) 차량 등록 및 인·허가 부서에 지방세 키오스크 도입
 - (설치장소)
 - 차량 등록부서 : 차량 취득세를 현장에서 즉시 신고·납부
 - 인·허가 부서 : 등록면허세를 현장에서 즉시 신고·납부
 - 세금신고 부서 : 취득세, 제증명을 비대면으로 직접 신고·납부
 - (소요예산) 5백만 원(1대당)
 - (허가절차) **차량 등록 및 인·허가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 가능**
 - (구 성 도)



V 기대 효과

- 시·공간적 제약 해결로 민원불편 해소
 - 각종 인·허가 시 즉시 면허 발급 가능
 - 자동차 등록 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
-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
 -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
 - 세금 납부에 대한 불편함, 반감 등 부정적 인식 타파
- 불필요한 예산낭비 억제 및 행정 인력의 효율적 운영
 - 종이문서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 억제
 - 새정부 지방인력 관리방향에 부합하는 효율적 인력운영 가능
 - 행정 인력 결원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공백 해소